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안정화 주력

광주·전남 5개 기관 BI센터 입주기업 합동 '네트워킹 데이' 투자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 멘토링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동강대학교가 지역 내 스타트업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분야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광주 유담부티크호텔 연회장에서 '2022년 광주·전남 5개 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해 광주대 BI, 남부대BI, 동신대BI, 한국전력BI,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해 5개 기관 BI센터 입주기업 20곳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광

주대, 남부대, 동신대 등 지역 대학 BI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입주기업 네트워킹 데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네트워킹 데이' 참여 기업들은 투자 분야와 마케팅 분야로 나뉘어 전문가 그룹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투자 분야는 노스마운틴 조용국 대표와 비엠메이커스 김우조 대표가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스킵을 전수했다. 마케팅 분야는 GS홈쇼핑 최백영 부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이현찬 과장이 말

아 판로개척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노스마운틴 조용국 대표는 '투자자,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의 공통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앞으로 '네트워킹 데이' 참여 기업을 지속 관리하고 크라우드 펀딩 운용사와 수출지원 유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기업은 기업추천 및 홍보를 비롯해 정부의 1:1 매칭 투자, 사업화 지원비 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박경우 센터장은 "대부분의 창업 기업이 겪는 Death Valley, 즉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기 대처 방안과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광주유담부티크호텔 연회장에서 '2022년 광주·전남 5개 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동강대 제공>

전남대 '온실가스감축 인재양성사업' 선정

전북대와 컨소시엄 구성...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전문인력 양성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인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2년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은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 '온실가스감축 혁신인

재양성사업'은 학사 및 석 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혁신정책,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에 이르는 온실가스감축관련 전주기적 기술과 탄소중립 정책개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등 국제관계학에 이르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호남권 컨소시엄은 올해 3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5억원씩 1단계 사업 2년 반 동안 1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저증저장공

등 심화전공과 온실가스 감축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전북대와 공동으로 개설해, 교차강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습·연구실 구축 등 인력양성 기반 준비를 수행한다. 또 2023년부터 에너지자원공학과 2, 3, 4학년 학생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혁신교육 및 혁신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산학, 해외대학 협력체계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이정한 교수를 중심으로 학부생을 위한 CCUS 기초트랙과 대학원 학생을 위한 고급트랙을 설계한 '인재양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융합 교육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산업 선도 및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나갈 방침이다. /임재만 기자

조선대-베트남 한국글로벌학교, 교류 협력 '맞손'

한·베트남 교류 확대 업무협약 체결...사범대학 인재 현지 파견

조선대학교와 베트남 한국글로벌학교(KGS)가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조훈 부총장과 한국글로벌학교 안경환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대학 및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외 교육봉사 및 베트남 현지 교사 파견을 통한 해외취업 협력, 베

트남 유학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베트남 현지 교육봉사 및 교사 파견 협조를 비롯해 베트남 유학생 유치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 한국글로벌학교는 현재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유일한 베트남 내 한국국제학교로서 다양한 체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업언어는 한국

어, 영어, 베트남어를 활용하며 영어를 기본 언어로 채택해 교육하고 있다. 한국글로벌학교 안경환 이사장은 "조선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베트남 교류 활성화에 힘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 조선대학교 부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통해 베트남과 관계협력과 한·베트남의 실질적인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고교생 학과전공체험·예비승무원대회

기내방송, 면접 이미지메이킹, 현직승무원과 1:1 멘토링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최근 고3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체험 및 예비승무원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내서비스 실습으로 학생들이 각태일을 제조해보고 직접 서비스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내방송과 스피치 기법, 면접 이미지메이킹, 현직 승무원과 함께하는 예비승무원 대회를 진행했다. 또 현직승무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1:1 멘토링으로 입시생들의 면접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송원여상 한세은 학

생은 "이번 예비승무원 대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교수님

과 선배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면접에 최선을 다해 호남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대·동서대 'LINC 3.0 디자인·메타버스' 인재양성 협약

광주대학교가 LINC 3.0 디자인·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대 LINC 3.0 사업단은 최근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대와 ICC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LINC 3.0 사업 디자인·메타버스 분야의 ICC 공유 및 협업 성과 창출과 창업, 취업,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학공동 R&D, 기술이전, 맞춤형 All-SET 지원 등의 기술개발 사업화

공동 추진과 권역별 디자인·메타버스 분야 ICC 간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약속했다. 노선식 LINC 3.0 사업단장은 "지역 간 디자인·문화콘텐츠 특성과 역량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과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양 대학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동신대-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산학협력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신대학교는 최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와 서울 영등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동신대 보건행정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연계, 강의 등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연수 ▲현장연수 및 취·창업 기회 제공 ▲비대면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연계, 강의 등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연수 ▲현장연수 및 취·창업 기회 제공 ▲비대면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 장비와 공간 사용 협조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병원행정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신대 이호식 보건행정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